

제6강 서사문과 묘사문 II

(1교시)

▲ 묘사란 무엇인가

가. 묘사의 개념

- 구체적인 대상을 말로써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기술 양식
-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자 진술한 것으로, 대상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 등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기술 양식
- 읽는 이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체험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함.

나. 묘사의 중요성

ㄱ. 형상화의 수단 : 사유의 두 가지 방식 - 형상사유(문학적 사유)와 개념사유

- 개념사유 : 어떤 대상물을 개념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것
- 형상사유 : 어떤 대상물을 형상적 정서적 자연적으로 사유하는 것
- 사유할 때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기란 어려우며, 둘 중 어느 것이 지배적일 때 개념사유, 형상사유라 하는 것이다.
- 설명, 논증과 같은 글의 기술양식 : 개념사유에 적합
- 서사, 묘사와 같은 글의 기술양식 : 형상사유에 적합
-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서사문만이 아니라 묘사문도 필요.
- 인물의 외모 등을 묘사할 때는 전적으로 서사문보다 묘사문이 유리.
- ∴ 묘사 : 어떤 인물 또는 사건의 형상화에 큰 역할을 함.

ㄴ. 묘사의 중요성에 관한 예문

나는 기술의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구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른바 '카메라의 눈'이라는 서술인데, 나는 그리움을 그대로 쓰느니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장면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역, 철길, 기차, 접혀진 우산, 비, 그리고 처마 끝에 서 있는 사람 등등으로 그 소설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걸맞는 이미지들을 주워 모아서 그림을 그려내듯이 써내려간다.

(황석영)

나는 또한 발자크의 「상어가죽」에 나오는 은행가의 만찬회 장면에서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장면에 아주 매혹되고 말았다. 그때의 소란스러운 잡음이 내게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잡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발자크가 특별히 손님들의 자태와 용모를 묘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중에서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눈초리와 미소, 행동까지도 직접 본 것처럼 느낀 것이다.

(막심 고리키)

다. 묘사의 방법

ㄱ. 이미지의 수집과 적절한 배치

: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 퍼즐을 맞추듯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인물 혹은 배경 등을 여러 이미지를 동원하여 짜 맞추는 방식.

ㄴ. 지배적인 인상을 집중적으로 표현

: 지배적인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법과 같은 수사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ㄷ. 적절한 비유 사용

: 속담과 같은 관용적 표현을 이용하거나 은어, 속어, 대화, 풍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음.

▲ 인물묘사

가. 초상묘사

: 인물의 외모를 중점적으로 묘사. 그 인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함.

그녀는 심술궂고 날카로운 눈과 조그마하고 뾰족한 코와 체소하고 여윈 육십 안팎의 노파로,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윗눈썹과 속눈썹이 희고, 희끗희끗한 그녀의 머리에는 머릿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있었다. 또 흡사 닭의 다리처럼 가늘고 긴 목에는 후란네르의 넝마가 감겨져 있고, 어깨에도 이처럼 더운 날인데도 낡아빠지고 누렇게 된 짧은 모피 자켓이 걸쳐져 있었는데, 노파는 끊임없이 기침과 신음을 하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서)

나. 심리묘사

: 인물의 내면을 집중적으로 묘사. 과거보다 현대의 소설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짐

그레고르는 겁에 질린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발을 멈췄다. 앞으로 달아나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과로 자기를 폭격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천장 위에 있는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꺼내어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처음에는 겨누지도 않고 사과를 연달아 던졌다. 이

조그마한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 장치처럼 마루 위를 데굴데굴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치기도 했다. 살짝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다치지 않는다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다음에 날아온 사과가 바로 그레고르의 등에 박히고 말았다. 뜻밖에 받은 심한 고통을 자리를 옮김으로써 가시게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레고르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꿈쩍도 할 수 없게 못 박힌 것처럼 느껴졌으며, 온 감각이 산란해져 그 자리에 뺨아빠지고 말았다.

(카프카 『변신』에서)

· 과거에는 주로 초상묘사가 쓰였으나 현대에는 주로 심리묘사가 쓰임.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여 의미를 피하는 방식을 피하는 추세.

∴ 좋은 소설은 초상묘사와 심리묘사가 적절하게 쓰여진 소설.

▲ 배경묘사

가. 배경묘사

ㄱ. 배경 - 특정한 시간과 공간

ㄴ. 인물의 활동이나 행적에 어울리는 적절한 배경이 필요

: 역사소설이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경우, 고증과 철저한 자료수집, 분석 필요

ㄷ. 과거 소설에서는 작품의 첫머리에 독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ㄹ. 작품 첫머리의 배경 묘사는 작품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ㅁ. 현대 소설에서는 작품 첫머리에 독립적인 배경을 설정하는 경향이 퇴조.

· 과거 -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자라온 고향 혹은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던 시대에는 그런 한정적이고 고정된 시간과 공간을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 현대 - 전국이 하루생활권, 사람들의 삶의 양상도 더 넓은 시공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한 편의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시간이나 공간을 묘사하는 게 무의미해짐.

나. 배경묘사의 예

(예1)

달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에서)

(해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모두 묘사되어 있음.

달과 달빛, 밤중을 지난 무렵과 같은 낱말들에서는 시간을, 온통 메밀밭인 산허리에 서는 이 글이 묘사하고자 하는 공간을 알 수 있음.

(예2)

베리에르라는 조그마한 도시는 프랑스 콩테 지방에서도 가장 아담한 도시의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붉은 기와의 뾰족한 지붕을 머리에 인 하얀 집들이 언덕비탈에 죽 펼쳐져 들어앉아 있고, 그곳에 우람하게 벌은 밤나무 숲들은 언덕의 아주 조그만 기복까지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거리의 성벽은 그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쌓은 것으로 지금은 폐허가 되어 버렸지만 그 수백 피트 아래를 두브강이 흐르고 있다.

(스탕달 『적과 흑』에서)

(해설)

· 예전 소설들의 전형적인 배경묘사 방법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된 장소에 대한 묘사.

(예3)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새벽의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혈빛은 들판이 드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 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해설)

· 배경묘사와 장면묘사의 공존 : 배경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냄.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영달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하듯 그를 둘러싼 주변 풍경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으며, 바람은 몰아치고 나무들은 들쭉거린다.

· 배경묘사나 장면묘사도 전체 서사와 관련을 맺을 때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4)

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신경림 「농무」 전문)

(해설)

- 가설무대에서 벌어진 공연이 끝난 뒤의 풍경과 그 풍경을 가로지르는 인물들을 생생하게 묘사
- 묘사위주의 글은 정서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교시)

▲ 장면묘사

가. 장면묘사

ㄱ. 구체적인 행위나 사건이 벌어지는 작은 화면

- 배경묘사가 장면묘사에 비해 비교적 커다란 단위를 묘사(행위의 시공간 등)

ㄴ. 작품의 현실성과 생동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능

- 배경묘사가 놓치고 지나간 작은 장면들을 묘사

예) 배경묘사만으로 놓칠 수 있는 운동회의 생생한 느낌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장면, 청군 백군 나뉘어 응원하는 장면, 달리기 하는 장면 등의 장면 묘사를 통해 표현.

ㄷ. 왜 그 장면을 보여주려는지 의의와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어떤 묘사를 하더라도 그 묘사는 소설에 유기적인 관계를 지녀야 한다.

ㄹ.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린다

- 소설의 맥락에서 불필요한 묘사들은 과감히 버려라.

ㅁ. 문체, 문장의 호흡, 작가의 개성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

- 묘사는 작가의 문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나. 장면묘사의 예

(예1)

아직 오월이건만, 이 근방에는 벌써 모기가 심하다.

“칠썩!”

하고, 윤초시가 제 넓적다리를 때린 것이 자리에 누운 뒤로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자리 위에 몸을 비스듬히 일으키어 앉으며, 남포불에다 손바닥을 갖다 대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애꿎은 다리만 부질없이 후려갈긴 모양이다. 손바닥을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마땅히 눈에 띄어야 할, 으르러진 모기의 시체와 같은 것은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쩍, 찌.”

입맛을 다시고, 그는 다시 목침을 고쳐 베고, 자리에 누워, 모기에 물린 다리를 북북 긁었다.

(박태원 「윤초시의 상경」에서)

(해설)

- 오월의 어느 밤, 윤초시라는 사람이 모기를 잡으려 했다가 허탕을 치는 짧은 순간

을 묘사.

- 잠을 청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기, 모기를 잡으려 했으나 허탕을 친 사람, 결국에는 다시 드러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묘사됨.
- 인물의 행동이 과장도 비유도 없이, 평강히 사실적으로 묘사됨.

(예2)

벼락바위에 갔다 온 첫날, 엄마는 이불을 들쓰고 누워버렸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발발 떨던 엄마는 이불을 개키고 앉아 독사처럼 몸을 도사렸다. 그 모습이 여간 우습지 않았다. 나는 그 무렵 생긴 꼴을 한답시고 꺾듯하면 엄마에게 눈을 하얗게 흘기곤 했다. 쌀 두 가마니 일을 저지르고 난 뒤 엄마는 기가 꺾인 반면 나는 그동안 구박받은 분풀이를 싣기 했다.

“궁둥이 시려 혼났네. 슷달이라 그런가, 왜 그러키 춘지. 내 참 드러서.”

엄마는 궁둥이를 방바닥에 문질러대며 아랫목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때마다 바람이 폴썩폴썩 일었다.

“메라구 해? 메라구 했냐구?”

“그놈이 승학한 놈이드문. 살살 그짓말만 시키고. 젊은 놈이 뭘 짓은 못 한다? 봄에 꼭 갓갓다고 하구선 나보구 지다리라네, 그 오라질 놈의 인간들이.”

(박병례 「그해의 겨우살이」에서)

(해설)

- 대화를 통한 묘사
- 묘사에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도 활용될 수 있음.

(예3)

미자는 누렁이의 항문이 열리며 똥이 나오자 울가미를 대머리 사내한테 넘기고 발바리의 목에 다른 울가미를 걸었다. 발바리는 누렁이에 비하면 허깨비였다. 이빨을 드러내놓고 덤비기는커녕 개개 개개 두 번 비명을 지르더니 곧 똥을 쏘고 뺐었다. 익숙한 숨씨로 죽은 누렁이와 발바리를 마당에 끌어낸 미자는 야구방망이를 집어들었다. 방망이질을 해야 근육이 풀려 고기맛이 좋아지는 법이었다. 몽둥이질을 끝낸 미자는 발바리를 기둥에 매달아 털을 태웠다. 노련 냄새가 착 가라앉은 새벽공기 속에 퍼졌다.

(정도상 「개 잡는 여자」에서)

(해설)

- 개를 잡는 장면과 털을 태우는 장면을 묘사. 필요한 문장 몇 개만으로도 생생한 묘사가 가능.

▲ 묘사문 쓰기

가. 비유를 활용한 묘사문 쓰기

(예) “전봇대”

- 1단계 : 꽃꽃하다, 뺏뺏하다, 가냘프다, 기다랗다, 외롭다, 멀쑥하다
 - 2단계 : 꽃꽃한 전봇대, 뺏뺏한 전봇대, 기다란 전봇대, 외로운 전봇대, 멀쑥한 전봇대
 - 3단계 : 꼬챙이처럼 꽃꽃한 전봇대, 바짝 마른 가래떡처럼 뺏뺏한 전봇대, 하늘에라도 닿을 듯 기다란 전봇대, 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인처럼 외로운 전봇대, 비 온 뒤 자란 쭉부쟁이처럼 멀쑥한 전봇대
 - 4단계 : 무슨 꼬챙이가 전봇대만 하나?
이 놈의 가래떡은 먹으라는 떡이 아니라 전봇대로나 쓰면 좋겠네
전봇대가 엉덩이를 찌를 만큼 낮게 내려온 하늘
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인이 저 광야에 전봇대처럼 서 있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전선도 없이.
비가 그쳤다. 저 들판의 쭉부쟁이가 어느새 전봇대처럼 멀쑥하게 자라났다.
 - ‘전봇대’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오로지 꽃꽃하다, 뺏뺏하다, 가냘프다, 기다랗다, 외롭다, 멀쑥하다라는 낱말에 어울릴 다른 낱말을 찾아보라
→ 연상을 통해 찾아낸 낱말을 전봇대와 연결 시켜라
→ 다시 낱말을 뒤집어 전봇대를 수식하기 위해 찾은 낱말로 전봇대를 수식해보아라
- : 수식어들이 절로 연결이 되고, 이런 과정을 자주 하면 참신하고도 잘 어울리는 수식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도 직접 해 보세요.)

“철거촌”

- 1단계 : (), ()
- 2단계 : ()철거촌, ()철거촌
- 3단계 : ()()철거촌, ()()철거촌
- 4단계 : (), ()

나. 배경과 장면 묘사하기

ㄱ. 쇠락한 집 묘사하기

(예) 주어진 낱말들을 이용하여 쇠락한 집을 묘사해 보세요.

더께가 진 마루, 강아지풀, 경첩이 떨어진 방문, 곰팡내, 들짐승의 배설물, 부서진 옷장, 쥐의 시체, 검은 곰팡이, 찢어진 벽지, 천장과 벽이 그을린 부엌, 시렁과 부뚜막, 아궁이, 찌그러진 양은냄비, 타다 만 장작

(조언)

- 이 묘사에서 주의할 점은 화자의 시선!
마루에서 방으로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옮겨가는 화자의 시선에 유의할 것.
역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시선으로 연습해 볼 것.

(낱말들이 사용된 소설의 예)

→

춘희는 황토색 먼지로 더께가 진 마루로 올라섰다. 부서진 마루 틈새로 강아지풀이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경첩이 떨어져나간 방문을 열어젖히자 어두운 방 안에선 퀴퀴한 곰팡내가 밀려나왔다. 들짐승의 배설물 냄새와 단백질이 썩는 듯한 역한 냄새로 섞여 있었다. 곧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고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부서진 옷장 옆으로 흙먼지를 뒤집어쓴 옷가지들과 함께 말라붙은 쥐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벽 이곳 저곳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고 방한가운데엔 천장에서 찢어져내린 벽지가 귀살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천장과 벽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려 있는 부엌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다. 시렁과 부뚜막은 무너져내리고 바닥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다. 부뚜막 위에 걸려 있던 가마솥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궁이가 있던 자리 위엔 찌그러진 양은냄비가 타다 만 장작과 함께 섞여 있었다.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 냄새와 구수한 밥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에 그녀는 잠시 코를 벌름거렸다. 하지만 곧 싸늘한 곰팡내만이 그녀의 코끝을 맴돌 뿐, 부엌 어디에서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천명관 『고래』에서)

ㄴ. 사당에서 절 올리는 노인 묘사하기

(예) 주어진 낱말들을 이용하여 사당에서 절 올리는 노인을 묘사해 보세요.

어두운 사당, 둥글게 부푸는 심의(深衣) 자락, 공손히, 흑립(黑笠)을 쓴 이마, 등뼈, 둥그스름한 곡선, 빠꾸기가 두 번 울음을 울 만큼, 이마를 떼고, 단정학

(조언)

- 절을 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주의할 것.
- 일반적인 절의 순서 : 몸을 구부리며 바닥에 뒹다(정적인 순간) 다시 반대의 순으로 돌아옴. 이렇게 절하는 사람의 움직임과 정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묘사해 볼 것.

(날말들이 사용된 소설의 예)

→

어두한 사당 안에서 넓은 심의(深衣)자락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할아버지의 두 손은 공손히 땅을 짚고 있었다. 흑립(黑笠)을 쓴 이마가 땅을 대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등뼈는 단단히 긴장되어 둥그스름한 곡선을 그렸다. 빼꾸기가 두 번 울음을 울 만큼 기다린 할아버지는 땅에서 이마를 떼고 몸을 일으켰다. 한 마리 단정함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심윤경 『달의 제단』에서)

★ 이번 주 과제

다음의 상황을 원고지 2장 분량의 묘사문으로 작성해 보세요.

1. 거울 혹은 물사발을 두고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 묘사해보세요.
2. 도시의 새벽을 묘사해 보세요. (단, 방금 장마가 끝난 도시의 새벽이어야 함.)
3. 다투고 돌아앉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묘사해 보세요. (대화를 넣어 묘사할 것.)
4. 애인에게 차이고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해 보세요. (주변상황을 묘사하여 애인에게 차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방법 사용)